

목포 춤추는 바다분수 새단장 관광객 '발길'

해상W쇼 27일 재개 바다분수 기능 개선

목포시가 춤추는 바다분수를 새단장하고 관광객의 발길을 붙잡는다. 지난 27일 개최된 목포해상W쇼와 함께 공연을 정상 재개한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대표적인 야간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춤추는 바다분수를 새롭게 단장해 목포해상W쇼 클라보 공연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

춤추는 바다분수는 지난 2010년 설치 이후 13년이 경과돼 설비가 노후화되고 공연의 참신성과 고유 콘텐츠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공연이 불가능해지면서 이를 개선하게 됐다.

시는 관광거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사업에 돌입해 오는 4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기능개선은 기존의 낡은 분수 시설물을 철거하고 부력체 내구성을 강화하는 한편, 최신기술을 접목한 수증펌프와 움직이는 분사노즐의 수량을 증가시켜 분수의 춤사위를 더욱 부드럽고 섬세하게 하도록 진행했다.

고사 분수의 높이를 기존보다 더 증가시키고 LED조명, 레이저, 빔프로젝터, 무빙라이트 등 공연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한편 추가 설치해 웅장함과 화려함을 돋보이게 했다.

육상에는 컬러레이저를 설치해 해수면을 도화지 삼아 그림이 그려지고, 바다분수 맞은편에 새롭게 선보이는 원형 전망 판은 평화광장 어느 위치에서든지 음악분수의 공연 정보를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고 목포의 관광지 소개와 시정정보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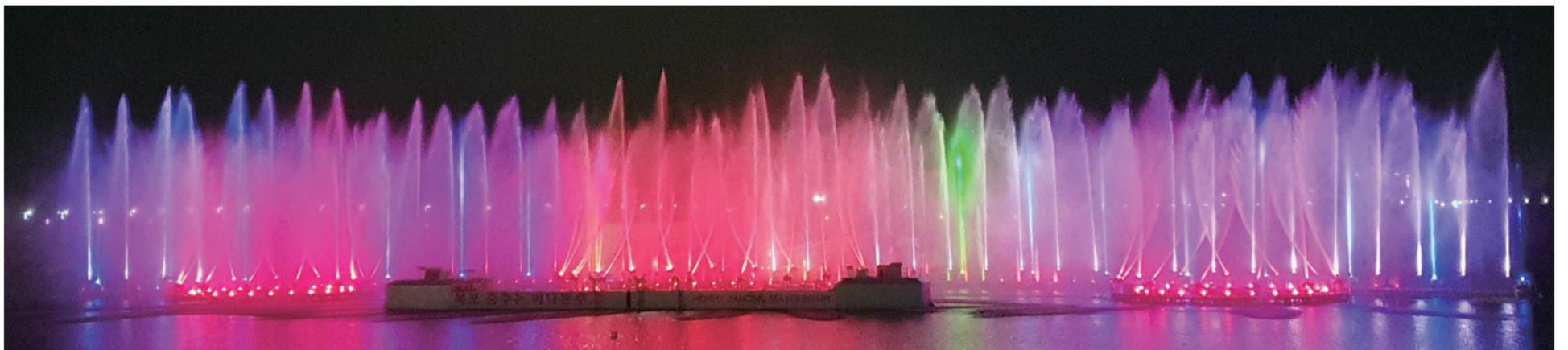
춤추는 바다분수는 봄(4월~5월), 가을(9월~11월)에는 화요일·수요일·목요일·일요일 하루 2회(오후 8시·8시 30분)가 운영되고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하루 3회(오후 8시·8시 30분·9시)가 운영된다.

여름철(6월~8월)에는 공연을 좀 더 늘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3회(오후 8시·8시30분·9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시 관계자는 "시설기능개선사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재개됨으로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가 즐겁고 감동적인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설기능개선사업으로 잠시 중단되었던 춤추는 바다분수가 다시 재개됨으로 화려하고 멋진 공연을 이어갈 수 있게 되어 지역 상인과 시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눈과 귀가 즐겁고 감동적인 공연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가 춤추는 바다 분수 공연을 지난 27일 정상 재개 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만호동, 1인 중장년 안부 확인 고독사 예방

중장년 1인가구 맞춤형 지원

목포시 만호동이 사회관계 고립 위험성이 높은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안부 살피기 사업을 시작한다.

28일 목포시 만호동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매주 홀로 사는 중장년 가구에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만호동은 전국 고독사 중 50~60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독거노인에 비해 독거 중장년 보호 서비스가 절실한 상황으로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중증 장애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살필 예정이다.

만호동새마을협의회(회장 양성원) 회원들과 1대 1 매칭을 통해 긴밀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안부 살핌 과정에서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히 복지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이를 위해 만호동은 사전 회의와 의견을 나누며 효율적인 민·관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김광미만호동장은 "안부확인 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꾸준한 돌봄을 통해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신규 착한가격업소 10개소 지정... 공공요금 지원

목포시는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0개 업소(외식업 7, 미용업 3)를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난 2월~3월 상반기 정기모집에 참여업소를 신청받아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분야에 대한 현장평가와 체납, 행정처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10개소를 새로 지정하게 됐다.

신규지정 업소에는 지정서 교부와 인증표찰이 설치됐으며 이외에 운영물품, 종량제봉투 및 공공요금 지원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유달산북축제 행사장 등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이용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오는 5월 소년(장애인)체전을 대비한 이용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직원들이 착한가격업소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행정안전부 및 시 홈페이지 소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착한가격업소의 경영 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목원동 원도심 상인회, 봄맞이 대청소

목포시 목원동 원도심 상인회(회장 신홍수)가 지난 24일 목원동 로데오 광장 구석구석을 대청소했다.

28일 목포시 원도심상인회는 2024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을 대비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로데오 광장 및 목원동 일원에서 쓰레기 수거, 잡초 제거 및 불법광

고물 정비 등 대대적인 청결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신홍수 회장은 "원도심 상가 일대를 깨끗하고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전국소년(장애학생)체전 손님 맞이와 위해서도 친절과 청결이 중요하다. 앞으로도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경찰, 선진 교통문화 도약 광역 캠페인

홍보지·홍보 물품 전달

목포경찰서(서장 김범상)는 목포시(시장 박홍률)·목포교육지원청(교육장 정대성)·유관기관·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회장 오현석) 등 시민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5호광장 등 주요 교차로 10개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람 중심'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읍주운전 근절, 주차장 문화개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 방법, 긴급차량 양보 운전 등 교통법규 준수 관련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의 교통의식 개선을 촉구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홍보지와 홍보 물품을 전달하는 등 가시적·적극적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목포시민들로 구성된 '교통안전 목포시민 연합회' 회원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향후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선진 교통문화 목포시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포경찰이 목포시, 목포교육지원청 등 시민 500여명과 함께 광역 캠페인을 펼쳤다.

목포시 제공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올해 5월 전국소년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목포경찰서는 선진 교통문화도시 목포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정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범상 목포경찰서장은 "올해 5월 전국소년 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초석이 될 이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 드린다"며 "목포경찰서는 선진 교통문화도시 목포를 위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정성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목포시, 목포대 의대 유치 SNS 릴레이 캠페인

박홍률 목포시장 시민동참 호소

목포시가 전남 서부권의 34년 숙원사업인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챌린지는 국립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개인 SNS에 참여 이유 및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첫 주자로 나선 박홍률 목포시장은 '목포시민의 34년 숙원! 의대는 국립목포대로!'란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동참



목포시가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SNS 릴레이 챌린지를 시작했다. 목포시 제공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많은 시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문차북 목포시의회의장과 송하철 국립목포대학교 총장을 지목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목포시는 전남 서부권의 열악한 의료여건을 개선하고자 지역 거점대학인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34년간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며 "공공의료는 시장경제 논리가 아닌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의료기관 접근성이 취약한 전남 서부권 주민들의 응급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및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포대에 의과대학이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